

품앗이로 상부상조하는 자급자족형 은퇴자공동체를 꿈꾸며

조상곤 · 라성숙 부부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3년 전 조상곤(51세) 씨 부부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로 내려왔다. 오랫동안 근무했던 양로원을 그만두고 귀촌했는데, 농사로 전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발전된 21세기형 노인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가졌던 진정한 꿈은 도시에서 정년 은퇴한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실버타운을 만드는 것이었다.

“제가 의정부에서 양로원에 근무할 때 노인들을 보면서 죽음만 기다리는 장소 같아 오래 전부터 희망을 주는 색다른 공동체를 설계하며 꿈을 꾸게 됐지요. 제가 계획하는 공동체는 가장 생태적인 집을 지어 도시의 퇴직자들에게 채소도 가꾸며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이웃돕기와 지역학교를 살리는데 쓰겠습니다.”

간호사 출신 아내와 어르신들 섬기며 농촌마을에 쉽게 적응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곳이 무주였던 셈이다. 그의 아내도 흔쾌히 동의해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첩첩산골로 들어왔다.

그는 지역인사들과 전국의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구상을 밝히고 도움을

호소했다. 결국 그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어느 독지가가 은퇴자 마을을 설립할 목적으로 1만2천 평의 땅을 기증했어요. 30명이 넘는 자문 위원들이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씨는 이 프로젝트가 무풍면과 무주군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개발 차원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들의 태도가 미온적이었으며 못내 서운해 했다. 다행히 새로 부임한 김원태 무풍면장이 그의 프로젝트에 대해 호감을 갖고 격려해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조씨는 자신보다 10년 어린 아내 라성숙(41세) 씨를 만나 비교적 늦게 결혼했다. 간호사 출신의



▲ 동갑내기 이웃의 한옥펜션 앞에서



▲ 집 앞마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 집 앞 고구마를 심은 텃밭에서

라씨는 한때 보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귀촌하기 전에는 양로원에서 남편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해 일했다. 그래서 두 부부는 노인을 돌보는 일은 아주 전문가다. 무주에 아무 연고가 없는 조씨 부부였지만 금평리 어르신들을 극진히 섬기고 돌봄으로써 처음부터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더욱이 라씨는 아프고 병들어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백의의 천사가 되어 응급조치와 간단한 진료로 봉사하곤 해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과거 보건소에 근무할 때 보건사회부장관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이었다.

“저는 여기 빈손으로 왔고, 지금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입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다행히 아내는 무주의료원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해서 아이들 교육비는 벌고 있죠.”

빈집을 개조한 아늑한 보금자리... 두 아이들의 추억 만들기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중학교 2학년생 딸과 초등 학교 6학년생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전학을 와서 시골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 아들은 학생회장에



▲ 마당에서 꽃씨를 받으시는 강희장님

출마한 적도 있을 정도로 리더십이 있고 교우관계도 원만하다. 공부도 잘한다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조씨는 불편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견뎌주는 자녀들에게 미안해한다. 가족들이 낡고 허름하기 짝이 없는 농가에 들어가 사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적응해서 살지만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땐 곤란하더군요.”

두 오누이들에게 도시가 그리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해맑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시골이 더 좋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아빠가 구상하는 공동체 마을이 완성될 때까지 당분간 그 집에서 살아야

만 한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세 개가 ‘c’자 형태를 이룬 조씨의 집은 한 길가에 있는 외판집이었다. 바로 집 앞에는 군내버스 정류소가 있었는데, 조씨의 사랑채 바깥쪽으로 구멍가게를 한 흔적이 보였다. 옛날 집주인이 정류소 쪽의 바깥벽을 뜯어 미닫이 유리문을 달고 장사를 했던 것 같았다. 큰 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버스정류소와 조씨 집 일부를 둘러싸고 있고, 집 뒤로는 야트막한 동산이었다. 그의 집 옆으로 ‘금척마을’이라 새겨진 돌비가 있었다. 그 비석 너머로 마을이 숨바꼭질하듯 겨우 몇 채가 눈에 띄었다.

“우리 마을의 가구 수는 60호 정도 되는데,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은 2명밖에 없지요. 주민들은 주로 사과와 고랭지 채소, 옥수수 등을 재배합니다.”

또 무풍 호도도 유명하다고 했다.

“호도가 혈값에 팔려나가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무풍호도를 브랜드화해서 고급상품으로 만들어 팔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농림부와 산림청에 신청해볼 생각입니다.”

조씨는 올해 집 바로 옆 400평의 밭에 고구마를 재배했다. 그것도 판매용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같이 나눠먹겠다. 그 외에 4천 평 정도 되는 밭에 들깨와 콩 등을 심었다. 농약과 화학비료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농번기 때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이웃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일손이 필요한 이웃을 거들어주기도 한다.

“품앗이로 하니 일도 능률이 오르고 한 가족처럼 정도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 동갑내기 이웃인 이태일(51세) 씨와는 서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이씨는 부지런한 농사꾼이지만 작년에 양지바르고 전망 좋은 산마루에 한옥 형태의 멋진 펜션을 지어 지금 운영하고 있다.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외지에서 방문하는 손님들로 바쁜 그를 위해 조씨는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준다. 언젠가 되돌아올 품앗이로 말미암아 조씨의 꿈도 활짝 꽃 피우게 될 것이므로. ㉟

■ 59페이지에서 연결

또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농업인의 만0세 자녀에게는 월평균 130천원, 1세 115천원, 2세 95천원, 3세 65천원, 4세 59천원, 그리고 5세 84천원이 지급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연령별 월 지원액 인상내역

(단위 : 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70%)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35%)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0세	253,000	260,000	7,000	126,000	130,000	4,000
1세	222,000	229,000	7,000	111,000	115,000	4,000
2세	183,000	189,000	6,000	92,000	95,000	3,000
3세	126,000	130,000	4,000	63,000	65,000	2,000
4세	113,000	117,000	4,000	57,000	59,000	2,000
5세	162,000	167,000	5,000	81,000	84,000	3,000

농림부는 또한 지난해까지 보육시설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던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키로 했다.

농림부는 농업인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농촌지역에 육아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의 많다는 여론에 따라 농업인의 개인양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를 도입해 각각 운영해 왔으나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54페이지로 연결**